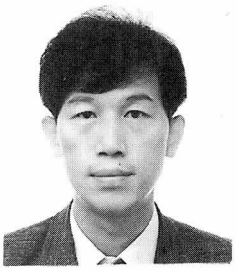


등산 관광의 지혜

김　종　권

풍각쟁이처럼 이산 저산 돌아다니다 보니 어언 20년이 흘러버렸다.

산악회 회장에서부터 보따리 관광까지 등산에 관한 일을 안해 본 것 없이 다 해보다가, '79년 관광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산이 좋아 산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처음 관광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등산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관광상품으로 윗 상사들 눈치보며 겨우 한 대의 버스에 낙엽을 줍듯 몇 명을 채워 떠나곤 하면, "이봐, 김주임, 한려수도 좀 신경써!"하곤 했다.

그렇게 푸대접을 받던 등산 행사가 최근들어 각사가 회원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 편안하고 좋은 차를 배차한다 하니, 이제 등산 상품은 천덕꾸러기 상품이 아닌 사계절 중요한 상품으로 정착했다는 생각이 든다. 날로 레저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보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즐기며 생각하는 등산, 스키, 낚시, 골프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새로운 관광 상품과 산을 찾아 헤맨다.

이곳 저곳 전국의 섬과 오지 등 장애가 없는 곳이라면 답사를 떠난다. 그러다 보니 400여 산을 오르내리며 일지를 쓰고, 사진을 찍다보니, 이젠 자료가 제법 많이 수집되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사진에도 많은 실력을 쌓아 이제는 아마추어 작가라는 말까지 듣는다. 이제는 회사의 중견간부로 경제적·시간적 여유도 있어, 체계적인 등산 활동과 후배 등산 안내원들의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레저 인구를 유치하려고 할 때는 그 만큼 노력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등산 안내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등산 인구는 계속 늘고 있으나 아쉬운 것은, 아직도 뚜렷한 등산 안내원이 없고, 단지 산 길을 안내하는 정도이므로, 어느 기관에서든 전문 안내원과 레저 전문가를 속히 양성할 때가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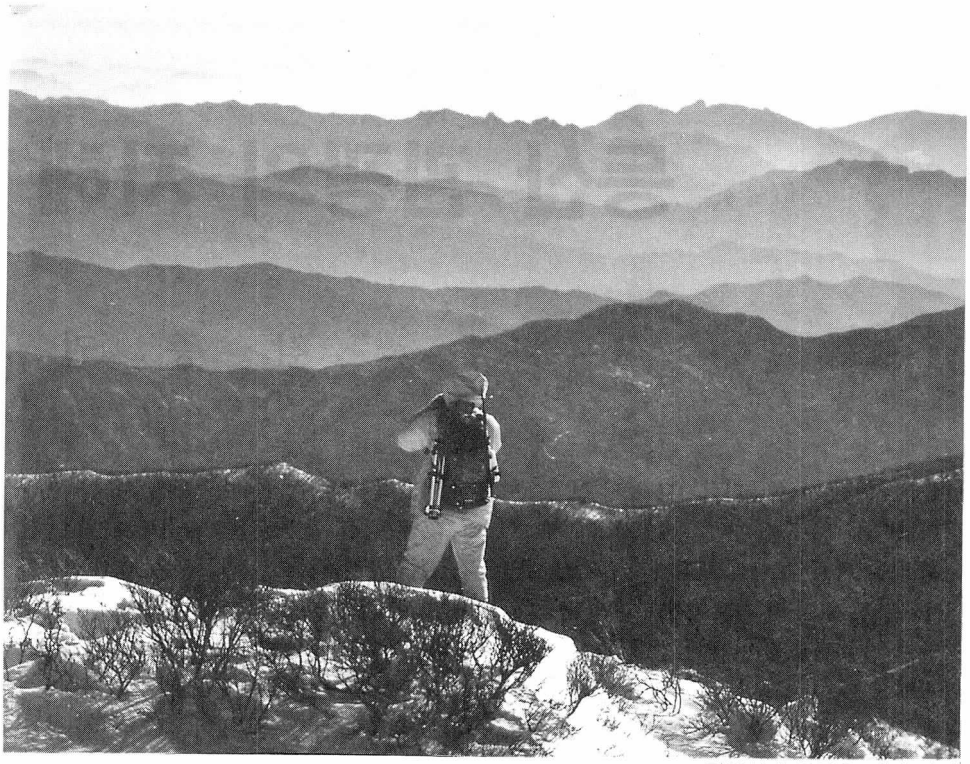
필자는 등산 안내원이라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국내 관광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이다.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그곳의 역사, 지리, 유적지, 산맥을 설명하는 지식과 매너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산 등산학교(?) 정도는 나와야 된다. 아니면, 응급처치 등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급변하는 기후와 계곡의 급류로 인한 조난 사고시 구조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본적인 산 50개 정도는 오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서울 근교의 산에서부터 국립·도립공원의 산을 올라왔어야 산악인들과의 대화가 된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리더로서 산악인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 잘못하면 하루 산행이 엉망이 되고, 요구조건이 많아지며, 시간도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정 고객을 계속 유치하기도 어렵다.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 산행의 계절로 접어들었다.



덕유산에 올랐을 때의 필자

봄·여름·가을 산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철학을 느끼고, 산행을 통해 삶의 보람도 맛보게 되지만, 겨울 산행은 이에 비할 수 없는 감칠맛나는 경험이 될 것이다. 하얀 눈이 덮힌 마을의 경치와 서릿발로 하얗게 채색된 관목들, 나무가지의 고드름(상고대) 등, 눈부신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겨울 산행을 하게 되면,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매서운 한기와 추위 속에서 마음과 몸이 티없이 맑게 되고, 가쁜 숨을 내쉴 때마다 포연처럼 부서지는 하얀 입김을 안고 목적지에 올라, 보온통에 담아 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하노라면, 그때마다 훈훈히 녹아드는 짜릿한 맛을 겨울 산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새하얀 겨울 산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다. 갑짜기 불어닥치는 눈보라와 멀쩡하던 바위표면이 빙벽이 되고, 눈이 쌓여 길을 잃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위험도 뒤따르므로, 겨울 등산은 철저한 준비와 체력을 감안, 산행지 선택에서부터 충분한 비상식량, 보온통, 윈드자켓, 썬그라스, 장갑, 아이젠, 스페츠, 모자, 구급약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며, 전문 안내원의 자문을 얻어 등산에 임하는 것이 겨울 산행의 요령이다. 특히 겨울 산행은 마음가짐과 준비, 체력과 기술 그리고 정신력이 많이 요구되며, 슬립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추가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깨끗한 산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산을 안방처럼 생각하자는 말이다. 안방처럼…….

〔필자 : 본회회원 · 천일고속관광 차장〕